

이정모의 ‘자연이 건네는 말’



좋아! 놈들이 이기게 두지는 않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머스크의 우주선에 태워 멀리 보내버리고 싶다.”

평생을 집팬지 연구와 환경운동에 바친 제인 구달 박사의 마지막 인터뷰를 전하는 기사는 대개 이 문장으로 시작했다. 일본 머스크, 트럼프, 푸틴, 시진핑, 네타냐후 같은 인물들을 직접 지목하며 “그들과 그 지지자들을 머스크의 우주선에 태워 그가 발견할 행성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세상을 오염시키는 권력자, 협력 대신 대립을 키우는 리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며 폭력을 지지하는 무리에 대한 구달의 통렬한 풍자였다.

구달의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집팬지의 행동을 관찰하며 인간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본 과학자의 진단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집팬지 집단에서 나타나는 수컷의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설명했다. 하나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공격형 수컷’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조율하고 머리를 쓰는 ‘전략형 수컷’이다. 전자는 처음엔 강력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집단을 이끈다. 자연의 오랜 실험이 증명하듯 지속가능한 지배는 폭력이 아닌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다. 이 법칙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사회 역시 여전히 ‘공격형 수컷’의 논리에 익숙하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기는 토론, 숫자로 상대를 압도하는 여론전... 그러나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결국 집단을 파멸하게 만들 뿐이다. 상대를 짓밟아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구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덧붙였다. 집팬지는 낯선 무리를 만나면 털을 곤두세우고 공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이 감정은 순식간에 전염되어 집단 전체를 흥분 상태로 몰아넣는다.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다. 분노는 인터넷을 통해 번개처럼 퍼지고 혐오는 언론과 정치의 언어를 타고 확산된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증오가 집단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격성의 전염’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이라 부르고 과학적 사실조차 이념의 잣대로 재단한다. 끈금없이 중국인을 혐오하는 말에 ‘좋아요’를 누르고 상대를 조롱하는 댓글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것은 집팬지 무리가 집단 공격에 나설 때 느끼는 본능적 쾌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주선에 태워 보내야 할까? 단순히 정치인 몇몇을 떠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 기후 위기를 부정하며 이윤만을 좇는 기업,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아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진화를 가로막는 존재들이다. 구달이 말한 ‘머스크의 우주선’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은유다. 누구를 배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럼에도 구달은 마지막까지 절망을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 지구가 어두워도 희망은 있다. 희망을 잃지 말

라. 희망을 잃으면 무관심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인간 사회는 아직 성장 중이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영장류이며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배우는 중이다. 집팬지가 공격성과 협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듯 우리 역시 분열과 연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제인 구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우주선’에 주목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민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좋아! 놈들이 이기게 두지는 않아!”라는 심정으로 “내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도 계속 애쓰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구달의 이 말은 단순한 투지가 아니다. 그것은 파괴와 분열의 분노보다 연대와 공감의 가능성을 믿는, 과학자의 확신이자 인간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힘과 혐오, 거짓과 탐욕의 언어가 판치는 세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만드는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돌보고 연결하려는 작은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인간이 지닌 공감과 협력의 능력은 여전히 변화를 이룰 힘이 있다. 구달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놈들이 이기게 두지 마라.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는 한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의료칼럼

사랑니가 골칫거리가 된 이유



김효준
조선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난다. 같은 반의 한 친구가 어느 날 한쪽 볼에 사탕을 물고 있는 듯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사랑니를 빼고 온 것이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대학 한 달 동안 사탕을 문 것 같은 얼굴로 학교를 다녔다.

사랑니는 치의학적으로 제3대구치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큰 어금니이다. 위아래 양쪽으로 총 네 개가 있으며 사탕을 깨달을 나이에 나온다고 하여 ‘사랑니’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Wisdom tooth’, 지치(智齒)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에 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러한 사랑과 지혜의 상징이었던 사랑니는 왜 치과에 가면 발치를 권유하는 치아가 되어버린 걸까?

사랑니는 사실 인류 진화의 흔적이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거친 나무 열매, 딱딱한 견과류, 질긴 고기 등을 씹기 위해 더 많고 강한 어금니가 필요했다. 그 시대의 턱뼈는 지금보다 훨씬 컸고, 사랑니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리

기술이 향상되고 보다 부드럽게 가공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턱의 크기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각 치아들은 여전히 과거의 크기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사랑니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공간이 부족해 사랑니가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잇몸 속에 파묻혀 있거나 비스듬히 자라는 경우를 매복치지 또는 매복사랑니라고 한다. 이때 부분적으로 드러난 사랑니 주변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기 쉽고 치실질도 어려워 염증이 생기기 쉽다. 치관주위염(Pericoronitis)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심한 통증과 부종, 때로는 발열과 턱밑농양까지 동반할 수 있다.

매복사랑니는 맹출 과정에서 앞의 어금니(제2대구치)를 흡수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랑니가 앞니 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면서 제2대구치의 뿌리나 목 부분에 충치를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 건강한 어금니까지 손상되어 더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잇몸과 턱뼈 속에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은 매복되어있는 사랑니를 포함하는 물혹이 턱뼈를 천천히 녹이면서 커지는 함치성낭이라는 질병이다. 이러한 낭성병소의 경우는 대부분 통증 등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다른 이유로 치과진료를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랑니를 무조건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위치에 나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청소가 잘되며, 충치나 잇몸질환이 없다면 굳이 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복적인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 사랑니나 인

접치아에 충치가 생겼을 때, 잇몸질환이 심할 때, 매복되어 인접치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때, 교정치료를 위해 공간이 필요할 때, 함치성낭 등의 병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해야 한다.

사랑니 발치는 일반적인 발치보다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완전히 매복된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일부 제거해야 하는 외과적 발치가 필요하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통해 사랑니의 위치, 뿌리의 형태, 하지조신경과 상악동 등의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2~3일간 부종과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감염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종과 통증을 한 달간 계속되기도 한다. 수술 후 초기에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은 이러한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발치 후 지혈을 위한 거즈를 잘 무는 것, 얼음찜질을 잘 해주는 것은 부종과 멍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처방받은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하고, 수술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금연과 금주를 하며,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사랑과 지혜의 상징이었던 사랑니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쉽긴 하지만 이 또한 정기검진,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사랑니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일 테니까.

社說

‘그림의 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 확대해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림의 떡’ 같은 신세라고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을 배분 받았지만 용도가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제한돼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에선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장성군 등 16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은 18.8%에 그쳤다. 전국 평균 집행률(32%)의 절반 수준인데다 장성군은 올해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했고 보성군(0.5%), 장흥군(0.9%)은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부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첫 해 90.3%이던 것이 해마다 하락해 올해는 상반기 집계이긴 하지만 30%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집계하더라도 지난해 집

행률(56.2%)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가 기반시설 조성에 한정된 탓인데 장성군이 사용처로 정한 ‘아이행복돌봄교육복합커뮤니티’처럼 인프라를 후학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시간도 걸리는 만큼 사용처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능하면 인구 유입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시행으로 기금 운영의 장단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지자체들도 정부와 제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흥군과 신안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잘 대응해 지난해 최대지원액인 160억원씩을 배분받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시각장애인 문턱 높은 키오스크 등 첨단기술

어제(10월 15일)는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정한 날인데 본보 취재진이 시각장애인과 동행해보니 현실은 장애물 전지였다.

집을 나서서 순간부터 장애의 연속이지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들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첨단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겐 장애물 하나를 더하고 있었다. 당장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터치식 출입문부터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아파트 출입 방식이 버튼에서 터치로 바뀌어 동 호수를 입력하기 힘들고 음성 안내도 없어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한 장애인은 2시간 넘게 출입구에 서 있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카페에선 키오스크가 문제였다. 점자나 음성 안내가 없어 메뉴를 선택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요즘에는 카페는 물론 웬만한 음식점에도 키오스크

주문이 일반적이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국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수가 광주는 7069명, 전남은 1만2852명으로 우리 지역에만 2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첨단기술 시대에 이전보다 더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입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애물을 없애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운동을 벌이는 꽤 됐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 개선에 치우쳐 있다. 첨단기술시대에는 배리어프리 운동이 일상에 파고든 전자기기의 장애를 낮추는 데도 적용돼야 한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상징한다. 세계 흰 지팡이의 날에만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無等鼓

마일리지 제도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항공이 처음 도입했다. 단골 승객을 붙잡기 위한 단순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곧 ‘하늘길의 화폐’로 불리며 항공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를 시작했고 1990년대 초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 클럽’으로 맞서며 양강 체제가 굳어졌다.

초창기 마일리지는 단순했다. 항공편을 이용하면 비행거리만큼 쌓이고 일정 마일 이상 모으면 공짜 항공편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도 쌓이고, 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항공사에 막대

석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서 ‘10년 후 자동차 말’되는 규정이 신설돼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엔 일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대량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치 하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1마일의 가치는 각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졌고 무료 항공권 혜택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말 많고 탈 많은 마일리지를 통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 고객이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다. 제휴 적립본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1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국내 양대 항공사 통합으로 마일리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은 반길 만하다. 문제는 마일리지 제도의 고질병인 추락한 신뢰 회복 여부다. 소비자의 충성도를 겨냥한 발명품이지만 그동안 불신만 쌓아왔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마일리지 통합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좌석 배정 등 하늘길 화폐의 신뢰 회복을 기대해 본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기고

다회용기 사용 조례와 충장로 축제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자리잡으며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 결과 1회용품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는 심각한 환경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광주 동구의회 의원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1회용품 줄이기 등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다회용컵’ 또는 ‘다회용기’란 용어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가 필요하였으며 당시에는 1회용컵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은 카페 운영 업주들의 굉장한 반발을 살 수 있었다.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동구 내 기

관·단체와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광주 동구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구청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지역 내 기관 행사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2년 처음 2500만원으로 시작한 다회용컵 제작, 참여 커피숍 홍보 등의 배경 예산이 현재는 연간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꾸준히 집행되고 있다. 덕분에 행사 때마다 쏟아져 나오던 1회용품 쓰레기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는 2023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해 쓰레기 배출을 크게 줄였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충장축제에서도 다회용기 대여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직접 행거는 정책적 지원이 그 기반이 되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충장축제는 ‘환경을 지키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지역 축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2024년 이후 하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이 제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매년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그 결과 다회용

기 대여서비스는 지역 행사와 축제 현장에 꾸준히 자리잡게 되었고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조례와 활동이 가진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전국 최초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개념을 제도화해 정책의 방향을 열었다는 점. 둘째, 제정된 조례를 실제 행정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 셋째,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 45개 기초지자체로 확산되며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는 더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다.

동구가 제정한 다회용기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강력한 실천이 될 것이다.

한창 진행중인 충장축제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를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환경을 지키는 길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